

## 국가별 신뢰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노트\*

김재한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개념으로 접근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러 개념 가운데에서도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측면, 특히 사회신뢰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측면은 여러 지역의 비교연구보다 특정 지역 중심의 연구로 접근되어 왔고, 따라서 여타 분야에 비해 계량화가 덜 되어 있다. 전통적 문화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를 계량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그 희소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간 신뢰/불신 수준 비교는 연구자마다 정반대로 언급될 때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좀더 객관적인 국가별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모델에 따라 국가순위가 뒤바뀌는 구체적 순위표 대신에, 국가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국가분류를 시도하였다.

사회신뢰수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화는 WVS(World Values Survey)의 조사이다. 사람들이 직접 체감하는 신뢰/불신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직접 설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WVS와 같은 기존 자료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WVS 조사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대신에 신뢰수준 추정치 모델 구축에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신뢰수준을 계산하였다. 어떠한 주관적 기준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오직 제3자에 의해 수집되거나 구축된 변수만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사회신뢰 수준을 아마도 최초로 시도한 작업으로서 전문가마다 다른 국가별 신뢰수준을 일치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결측치 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 활발하지 않는 방법론적 논쟁을 촉진시켜 계량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주제어: 신뢰, 국가순위, WVS(World Values Survey)

### I. 머리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개념으로 접근되어 왔다. 최근 여러 개념 가운데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분위기와 정치문화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사회신뢰/불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측면은 여러 지역의 비교연구보다 특정 지역 중심의 연구로 접근되어 왔고, 따라서 여타 분야에 비해 계량화가 덜 되어 있다. 문화적 영

\*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KRF-2002-005-B20002)과 한림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신뢰에 대한 연구를 계량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그 회소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신뢰/불신에 관한 계량적 지표는 개념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정부의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신용불량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지적되었다. 개인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이 있어야 신용위기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신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간혹 이러한 시스템은 대출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직접 판단하는 방법보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지만 부도와 같은 부실은 대출담당자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담당자의 부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출여부가 환수가능성보다 다른 부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평가시스템은 여전히 필요하며 오히려 더 정교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의 불만을 줄이기도 한다. 담당자의 자의성이 배제되면 그만큼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서도 확고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표에서 객관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기업신용등급은 늘 비판의 대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등급 올리기를 함으로써 채권발행금리의 하락과 같은 이익을 보고, 평가기관들은 수수료 확보를 위해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와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는 하향조정이 많은 반면에,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은 신용등급인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을 평가하자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객관적 평가지표에 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화 지표에 대한 한국 학계의 반응은 극단적 불신과 신뢰로 양분되어 있다. 한편으로 계량화 작업에 대한 무조건적 '무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 '맹신'이다. 계량수치에 대한 무조건적 무시가 부적절한 행위임은 굳이 여기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계량수치에 대한 무조건적 맹신도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정 기관의 특정 지수 발표에 지나치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도 하는데,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실제 외국인 투자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지수들도 있다. 각종 지수의 효능과 한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하고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의 신뢰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수치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모델에 따라 개별국가의 신뢰수준 순위가 뒤바뀔다면 그 순위표는 오히려 악용되기 쉽다. 사실 통계적 방법론은 보수적인 접근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어떤 독립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

미는 그 독립변수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즉 기각대상인 영가설(null hypothesis)은 그 변수가 관계 없다는 가설인 것이다. 실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신뢰 수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지만 대신 매우 불안정한 계량화 대신에, 덜 구체적이지만 안정적인 계량화를 추구한다. 즉, 사회신뢰의 국가순위표가 매우 불안정하다면 신뢰수준에 따른 국가분류만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 신뢰/불신 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평가하여 본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의 효능을 받아들이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 신뢰/불신 수준의 계량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난 후 전세계국가의 신뢰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 II. 사회신뢰수준의 국가간 비교의 가능성과 현황

비교연구와 시계열연구는 종종 비교되어 왔다. 후자가 단기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전자는 장기적 인과관계 추출을 위해 접근된다. 신뢰/불신이 단기적 인과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띤 정치문화적 측면을 지닌 것이라면 국가간 비교가 중요할 것이다.

신뢰수준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는 개별국가의 신뢰수준이 급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국가의 사회신뢰수준이 급변한다면, 국가순위표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신뢰 수준이 감소하고 있고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는 언급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불신에 관한 보도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김제한, 2004).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불신 체감도가 국가간 비교를 저해할 정도로 급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한 국가의 사회신뢰수준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수준은 순환한다. 높은 불신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제도화를 가져다주고, 제도화는 신뢰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신뢰수준을 증대시키고, 고양된 신뢰수준은 제도화를 느슨하게 하고, 느슨한 제도하에서 불신은 증대하는 등 불신의 증감(增減)이 반복되는 순환이다. 교통혼란도 그것을 겪은 직후에 교통질서가 잘 정돈되는 것처럼 신뢰/불신도 순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도 국가간 비교를 저해할 만큼 큰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척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간 신뢰/불신 수준 비교는 연구자마다 정반대로 언급될 때가 많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4개국을 두고도 사회신뢰 수준의 순서는 연구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4개국에 대해 각기 다른 7가지의 국가순서가 문헌에서 주장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Buchan, Croson, and Dawes, 2002). 물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어 7가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순서가 있음은 사실이다. 국가순서에 대해 좀더 명확히 언급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과 미국은 신뢰/불신 연구에서 가장 많이 비교된 국가들인데, 미국보다 일본의 사회신뢰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거나 전제한 문헌들이 있는 반면에(Ouchi 1981; Inglehart et al., 1998), 일본보다 미국의 사회신뢰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문헌들도 있는 것이다(Yamagishi, 1988; Putnam, 1993; Fukuyama, 1995; Hagen and Choe, 1998; Kim and Son, 1998; Cho and Choi, 2000; Buchan et al., 2002). 야마기시(Yamagishi)는 미국의 사회신뢰 수준이 일본 사회보다 높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인들은 낯선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한 높은 일반신뢰 수준을 보여주었고, 일본인들은 제재와 같은 보장성 측면 때문에 집단내부인들에게 더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사회 신뢰 수준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Fukuyama, 1995), 미국과 일본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는 문헌도 있으며(Buchan et al., 2002), 미국과 일본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는 조사결과도 있다(Inglehart et al., 1998).

한국의 사회 신뢰 수준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보다 더 높은 사회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실험결과도 있지만(Cho and Choi 2000),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한국을 4개국 가운데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사회로 보고 있다(Fukuyama, 1995; Inglehart et al., 1998; Buchan et al., 2002).

신뢰수준에 대한 비교국가적 연구들은 연구가 시행된 당시의 선입관에 크게 영향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도 1980년대까지의 고성장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일본의 신뢰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Ouchi, 1981), 그 이후 경제침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일본의 사회신뢰수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Buchan et al., 2002). 한국 사회의 불신에 대한 지적도 IMF구제금융 이후 더욱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뢰/불신 개념을 좀더 세분화하여 국가순서를 정한 연구도 있다. 부칸(Buchan) 등은 한, 미, 중, 일의 4개국 신뢰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세분화하여 다시 실험을 통해 구분했다. 실험참가자는 총 548명의 경제학 또는 경영학 2~3학년 학생들이었다. 한국 고려대학교의 140명, 미국 메디슨 소재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의 140명, 중국 베이징 소재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濟貿易大學)의 128명, 일본 오사카(大阪)대학의 140명이었다. 4개국

실험참가자의 인센티브로 환율에 기초한 금액 대신에 각각 1,000원, 10달러, 10 위안, 2,000엔을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칸 등은 미국 참가자들과 중국 참가자들의 선행(先行) 비율이 한국 참가자들과 일본 참가자들의 선행 비율보다 높다는 실험결과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뢰(trust) 수준이 한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국 참가자들과 중국 참가자들의 보답(報答) 비율이 일본 참가자들과 미국 참가자들과 비교 높다는 실험결과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성(reciprocity) 수준은 일본과 미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 1>로 요약된다.

<표 1> 한·미·중·일의 신뢰/보상의 수준

	높은 보상비율	낮은 보상비율
높은 신뢰비율	중국(52%, 65%)	미국(60%, 32%)
낮은 신뢰비율	한국(44%, 74%)	일본(44%, 34%)

(신뢰비율, 보상비율)

출처: Buchan, Croson, and Dawes 2002

사회신뢰수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화는 WVS(World Values Survey)의 조사이다. 신뢰수준의 원인 및 효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뢰수준 자체에 대한 연구의 다수가 국가별 신뢰 수준을 WVS의 국가별 단순집계수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LaPorta et al., 1997; Fishman and Khanna, 1999). WVS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꽤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는 질문지를 이용하고 있다(Inglehart et al., 1998).

<표 2>는 WVS의 1차(1981~1983년)에서 3차(1995~1998년)까지의 3차례 조사결과를 표본가중치로 합산한 결과이다.<sup>1)</sup> ‘모른다’는 대답을 결측치(missing value)가 아닌 비(非)신뢰로 코딩하여 WVS 웹사이트가 직접 합산한 것이다. <표 2>는 앞서 언급한 4개국의 신뢰수준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나타내고 있다. WVS조사로 알 수 있는 점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北歐)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사회신뢰를 체감하는 경향이 다. 반면에 브라질, 페루, 푸에르토리코 등 중남미 사람들의 신뢰 체감도는 낮다.

1) 네 번째(fourth wave) 조사는 1999~2001년에 실시되었는데, 조사 데이터는 2004년 9월 현재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제4차 조사자료의 국가별 신뢰비율은 앞서의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종발표 조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lt;표 2&gt; WVS의 국가별 사회신뢰체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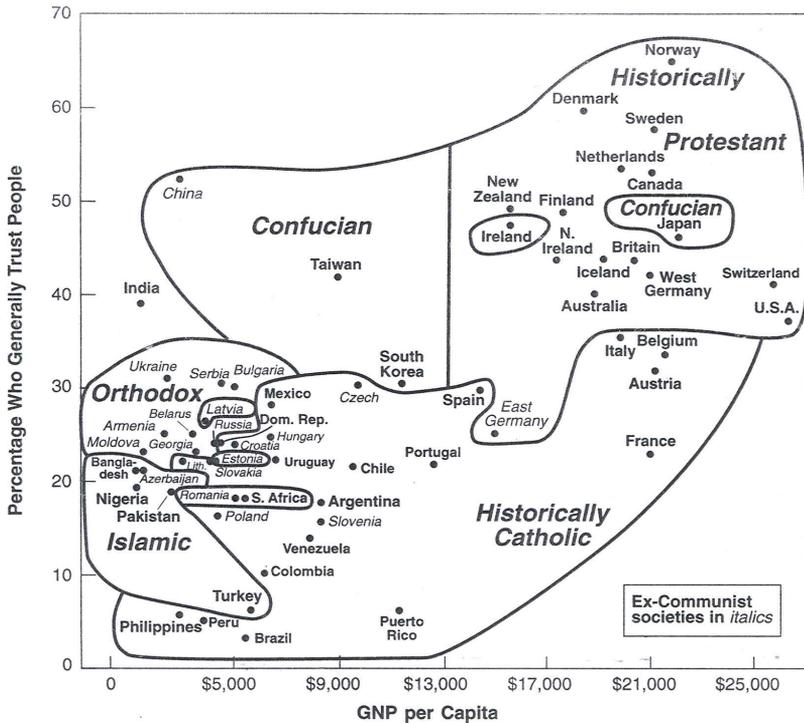
국가	사회신뢰체감비율	국가	사회신뢰체감비율
노르웨이	63.7	스웨덴	59.8
덴마크	56.8	핀란드	55.5
중국	54.7	네덜란드	51.2
캐나다	51.0	북아일랜드	44.2
미국	44.1	오스트레일리아	43.8
아일랜드	43.8	일본	42.8
아이슬란드	42.6	타이완	41.8
스위스	39.9	영국	38.9
바스크	38.6	독일	36.1
한국	34.1	인디아	33.8
모스크바	33.8	스페인	32.2
오스트리아	31.8	벨기에	31.7
이탈리아	30.8	러시아	30.5
몬테니그로	30.4	체코	30.2
헝가리	28.9	우크라이나	28.8
갈리시아	28.6	세르비아	28.4
탐보프	28.4	보스니아	26.9
불가리아	26.9	리투아니아	26.2
멕시코	25.7	폴란드	25.3
남아프리카	25.3	도미니크	25.2
동독	24.9	에스토니아	24.3
벨라루스	24.2	프랑스	23.8
크로아티아	23.6	아르메니아	23.5
슬로바키아	23.0	가나	22.5
아르헨티나	22.5	칠레	22.0
몰도바	21.8	우루과이	21.7
안도라	21.7	라트비아	21.5
포르투갈	21.4	조지아	21.4
나이지리아	21.3	발렌시아	21.0
방글라데시	20.5	파키스탄	20.4
아제르바이잔	19.4	슬로베니아	16.4
루마니아	16.1	베네수엘라	13.7
콜롬비아	10.7	터키	7.7
마케도니아	7.5	푸에르토리코	6.0
필리핀	5.5	페루	4.9
브라질	4.7		

출처: <http://www.worldvaluessurvey.org/services/index.html>

그림 1은 개별국가의 신뢰수준을 나열하고 동시에 경제력과 종교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Inglehart, 1999). 1인당 GNP와 신뢰수준의 상관관계는 +0.63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여, 1인당 GNP가 높을수록 사회신뢰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국민들이 신뢰수준을 낮게 체감하고 있으며, 그리스정교(Orthodox) 문화권이 중간 정도이고,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신교(Protestant) 문화권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신뢰를 체감하고 있다.

그림 1. 신뢰수준과 경제 및 종교와의 관계



출처: Inglehart and Baker(2000)

그러한 단순여론조사에 측정된 신뢰수준 지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많다. 밀러와 미타무라(Miller and Mitamura, 2003)는 WVS 등에 사용된 질문이 신뢰수준을 측정한다기보다 신중(慎重, caution)을 기하는 태도를 측정한다고 주장한다. 신뢰(trust)와 신중(wariness)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하나의 질문 대신에, 신뢰여부에 관한 질문과 신중여부에 관한 질문을 별도로 각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인(UCLA 학생)과 일본인(호카이도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남을 신뢰하는 사람은 동시에 남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WVS 자료는 신뢰수준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뢰/불신은 매우 문화적인 개념이다. 문화에 따라 설문조사에 대답하는 경향은 매우 다를 것이다. 설문조사 분위기도 솔직히 응답하는 문화에서부터 매우 도덕교과서식으로 응답하는 문화에서까지 다양하다. 남을 믿기보다 남을 주의해

서 해야 한다(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남을 믿을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성격이 급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사람, 속아도 복귀되거나 또는 사기를 친 사람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 자신의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적 관점에서 남을 신뢰하도록 교육을 받아 인식적 측면에서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 등 대답의 실제 이유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불신수준이 높은 사회에서의 설문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사실 위선자들은 남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는데, 따라서 위선자들로만 구성된 사회의 신뢰수준은 매우 높게 집계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을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말하느냐라고 물으면 참을 말한다고 대답하기 쉽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진실 수준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실제 남을 믿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도 신뢰수준이 아주 높게 조사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뢰수준 측정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부패 등과 관련된 각종 지수들에서 보듯이, 각종 집계(aggregate)지수와 각종 복합(composite)지수는 늘 한계를 지닌다. 여러 변수들을 집계하거나 복합할 때에 각 변수에 어떤 가중치를 주느냐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비판의 대상이다. 각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는 방법도 포함될 변수의 범위에 의해 가중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중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가중치를 주는 방법도 비판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직관에 부합되는 집계가 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은 여러 델파이(delphi)조사에서 쉽게 확인된다. 전문가의 직관에 부합되지 않는 계량적 지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 직관에서만 파생한 계량적 지표는 객관적 측정에 추가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것이다. 간혹 직관은 선입관에 좌우되기 때문에 너무 직관에 부합되는 지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처럼 표준화작업으로 지수를 객관화하려는 것도 한계가 있다. 표준화는 글자 그대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정하도록 수치를 재조정하여 상대평가를 점수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CPI의 한국 점수를 가지고 부패가 개선되었다 악화되었다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점수 증감으로 그 국가의 부패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지수 활용이다. 부패 지수는 타국과의 비교로 받아들여야 하고, 더구나 매년 지수의 구성요소도 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 국가의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표준화 대신에 동일한 설문조사와 같은 절대 수치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신뢰에 대한 각종 조사에서 신뢰에 대한 개념 정의와 조작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로 다를 때가 많다. 국가의 대외(對外)신인도는 사회신뢰수준과 관계는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WVS 등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대인(interpersonal)신뢰 수준으로 사회신뢰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회신뢰수준에는 대인신뢰수준뿐만 아니라 제도(institution)신뢰수준도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어 왔다.

아울러 대인신뢰에서도 지인(知人)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 개념은 지인에 대한 신뢰 개념보다 제도 신뢰와 더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공적 신뢰 개념과 사적신뢰 개념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개념 구분도 연구자에 따라 매우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뢰수준의 국가간 비교는 사실 양적인 차이보다 질적인 차이일 때도 많다. 동아시아사회에서의 신의는 전통적으로 봉우유신(朋友有信)에서처럼 지인과의 관계에서이지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의미하지는 않았다. 아시아국가에서 신뢰의 경계선이 매우 중요하다면, 반면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보편적 신뢰를 강조해왔다.

사적 신뢰관계를 공적 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시아 사회나 구미사회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공적 영역을 시혜(施惠)적으로 인식하는 아시아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으로의 사적 신뢰관계 연장은 곧 특혜 시비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공적 영역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구미사회에서는 사적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적 활동이 그렇게 비판되지 않는다. 이는 친인척 또는 지인의 공직 임용과 같은 인사정책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아시아사회에서의 사적 신뢰망이 공적 제도의 범망을 피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구미사회에서는 사적 신뢰망이 아무리 강해도 제도적 장치를 쉽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 신뢰망이 공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믿느냐는 직접 설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정황들도 효과적인 신뢰수준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한 국가의 사회신뢰수준을 여러 변수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다. 신뢰수준의 결정요소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시민활동의 정도가 신뢰 수준을 높인다고 보았는데, World Fact Book(1999)의 1인당 가입협회수가 미국 1.81, 한국 1.34, 중국 0.73, 일본 0.45이기 때문에 퍼트남의 이론은 사회신뢰수준을 그러한 순서로 의미한다는 것이 부칸(Buchan)의 해석이다.

물론 자발적 조직 활동이 신뢰수준을 증대시킨다는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집합적(aggregate) 자료 대신에 개별적(individual) 자료를 분석한 글랜빌(Glanville, 2002)은 조직활동 참여가 신뢰수준 인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특히 스포츠단체와 재향군인단체와 같은 조직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남을 덜 신뢰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톨(Stolle, 2001)도 집단내부의 신뢰수준이 아닌 일반 신뢰수준은 조직가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시미주와 류(Shimizu and Liu, 2000)도 일본에서 공식기관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원 활동을 덜 한다고 했다.

라포타 등(LaPorta et al. 1997)은 위계적(hierarchical) 종교가 사회불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World Fact Book(1999)에 따른 위계적 종교 신자의 비율은 중국 1%, 일본 1%, 한국 10%, 미국 28%이기 때문에 사회신뢰수준도 그러한 순서라는 부칸의 해석이다. 피시먼과 카나(Fishman and Khanna, 1999)는 1인당 전화기수, 1인당 GDP, 도시화수준 등으로 사회신뢰수준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 신뢰를 여러 종류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신뢰와 관련된 요소로 타인에 대한 비(非)경계(stranger accepted), 타인 지원(by helping others you help yourself),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helps local group as volunteer), 지역위원회참여(on local management committee), 지역프로젝트 참여(take part in a community project) 등을 호주 사회의 예에서 경험적으로 추출한 연구도 있다(Onyx and Bullen, 2000).

이러한 간접적 요인을 통한 신뢰수준 측정에도 신뢰수준 자체에 대한 직접 관찰 내지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고는 유의한 관련 변수들을 추출하지도 또 그 영향력을 알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신뢰/불신 수준에서는 사람들의 체감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신뢰/불신 측정을 위해서는 직접 설문조사자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직접설문 조사결과가 전문가의 직관과 다르게 나올 때에는 좀더 신중한 이용이 요구된다. 예컨대,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회신뢰수준을 미국보다 높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WVS는 정반대의 조사결과를 보였다. 학자들의 직관과 다르다고 잘못된 수치로 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직관과 배치되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는 WVS 조사결과의 규칙성에 좌우될 것이다. WVS의 일관성이 있을 때에는 놀라운 발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못한 조사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WVS의 신뢰수준 조사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중치된 변수 조합들이 발견된다면, WVS의 조사치는 일관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변수들의 가중합산에 의한 변형된 WVS 수치가 체감도와 일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표가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가중치를 추출하기 때문에 덜 자의적이고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설문의 조사결과만으로 전세계국가들의 사회 신뢰수준을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국가간 비교는 조사대상자의 신뢰수준에 대한 단순인식의 집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각종 객관적 변수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 III. 신뢰지표 구축의 방법론과 투입변수<sup>2)</sup>

국가별 신뢰지표 구축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는 델파이분석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역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 라운드의 예비 델파이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게 100점을 만점으로 가능한 한 여러 국가들의 신뢰수준을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공하는 지역별로 국가들을 분담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전공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 신뢰/불신을 특정 사건이나 특정 분야에 좌우되거나 선입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델파이분석의 핵심은 전문가간의 합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신뢰/불신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다만 전문가들은 대인신뢰보다 제도신뢰 개념으로 해당 국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대인신뢰 지표를 구축하려면 설문조사자료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여러 지표들은 정성(定性)적 또는 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표작업 수행자의 주관적 판단을 단순 계량화한 경우가 많다. 사실 대부분의 지표들은 그 지표 구축자들이 직접 수치를 부여한 각종 정성적 변수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반면에 객관화를 지향하는 지표화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코딩한 주관적 또는 정성적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대신에 정성적 기준에 의해 남이 구축한 각종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즉 어떠한 주관적 기준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오직 제3자에 의해 수집되거나 구축된 변수만을 포함시켰다. <표 3>은 투입된 변수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만을 나열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정식을 만들 때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모든 국가에 대해 수집가능한 변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변수의 수를 줄여야 한다. 즉 모든 변수에 대해 수집이 가능한 사례만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례에 수집이 가능한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국가군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 수를 줄이는 방법은 본 연구목적에서 벗어난다. 반면에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곧 서너 가지의 독립변수로 모든 국가의 신뢰수준을 측정하려는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보다 신뢰수준 자체의 측정이 목적이기 때

2) 여기서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라는 용어 대신에 굳이 '투입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신뢰/불신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불신 수준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적 근거에 따라 투입변수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변수들을 투입시켰다.

문에 좀 변형된 방법을 이용한다.

**<표 3> 신뢰수준 추정을 위한 대표적 투입변수 목록 및 출처**

---

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IMF 2003)
경제성과(Euromoney 2003)
경제적 자유(Gwartney and Lawson 2003)
경제적 자유(Miles, Feulner, O'Grady, and Eiras 2004)
공공서비스(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공공제도(World Economic Forum 2003)
금융거래보호(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금융기관 투명성(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금융기관의 법적 규제(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노동관계(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성별 노동참가비율(World Bank 2003)
뇌물공여부패(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단기금융(Euromoney 2003)
물가(IMF 2003)
부채(Euromoney 2003)
부패(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3)
사적 안전과 재산(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사회단결(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사회적 책임(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삶의 질(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세계경쟁력점수(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수출금융할인(Euromoney 2003)
신용등급(Euromoney 2003)
여성1인당 기대출산율(UN 2000; UNPD 2002; UNSD 2004)
윤리적 관행(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은행대부(World Bank 2002)
인구대비사기범죄건수(UNODC 2002)
인구대비횡령범죄건수(UNODC 2002)
일인당 신용카드발급수(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일인당국내총생산(통계청 2003; UNDP 2003)
일인당국민소득(통계청 2003; UNDP 2003)
자본시장(Euromoney 2003)
정규학교제학기대연수(UNESCO 2003; UNSD 2004)
정부비효율성(World Economic Forum 2003)
정의(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정치불안정위기(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정치위기(Euromoney 2003)
제도적 구조와 재산권 안전(Gwartney and Lawson 2003)
출생률(UNDP 2003)
탈세(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투명성(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3)
평균수명(UNDP 2003)

---

먼저, 각 개별 변수와 임시 종속변수(신뢰수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의 임시 신뢰수준 변수는 제3차 WVS조사의 사회신뢰체감비율이다. 신뢰수준과의 개별 변수 관계를 계산할 때 가능한 한 여러 변수들과 함께 분석한다. 주로 결측치(missing value)가 일치하는 변수들로 구성된 모델로 임시 신뢰수준에 대

한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결측이 아닌 변수들로만 구성되도록 사례(국가)들을 추출하여 신뢰수준 회귀방정식을 계산하였다. 그렇게 하여 각 변수의 신뢰수준 증감에 대한 독립적 효과를 계산하였다.

모든 사례(국가)들에게 기본 종속변수 값으로 평균값인 29.95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개별 변수가 결측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변수로 인한 신뢰수준 증감은 0으로 계산하고 결측이 아닌 이용 가능한 나머지 변수들로부터 개별국가의 신뢰수준 증감을 계산하였다. 즉 각 사례(국가)의 변수 값들을 대입하여 기본 신뢰수준 29.95에서 증감시켜 신뢰수준을 계산해 보았다.

물론 이 방법론은 한계가 있다. 먼저, 표본평균의 평균과 모집단 평균과의 편차 문제이다. 결측치들의 실제 평균값은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결측의 사례(국가)가 경제적으로 못 사는 국가 또는 신뢰수준이 낮다고 인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측의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의 분포가 무작위적이지 않고 편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변수가 결측인 사례(국가)의 신뢰수준은 그냥 중간 수준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측치가 많은 사례(국가)들은 다음 절에서 논하는 모델(방정식) 선택에 따른 추정치의 과도한 변화로 자연스럽게 최종 사례(국가) 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편차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자료 수집 가능성 및 경제력 등이 신뢰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선입관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위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측치의 평균값 대입은 결측치가 많은 변수일수록 평균값에 수렴하여 해당 독립변수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종속변수가 결측인 사례는 추정방정식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분산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다. 반면에, 관찰된 종속변수의 값이 평균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는 결측치의 평균값 대입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감소시켜 통계적 유의도를 과장시키지만, 회귀계수 추정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결측치가 많은 사례들의 종속변수 값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다면, 결측치의 평균값 대입은 회귀계수 추정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구 목적이 개별 변수의 영향력이 아니고 종속변수 추정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이 이용될 수 있다.

이상의 방법론은 WVS 조사치에 원칙적으로 의존하되, 개별 국가의 신뢰수준을 다른 객관적인 변수들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칙화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신뢰수준 관련 변수들은 다수가 있다. 그러한 상관관계/인과관계가 모델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따라서 굳이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여기서 보고하지는 않는다. 모델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는 바뀌지만, 양(+)과 음(-)이라는 부호는 잘 바뀌지 않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수준 변수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부패지수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3)의 부패지수는 WVS의 신뢰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뢰와 동어반복을 연상시키는 지표를 제외하곤,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점수(World Competitiveness Score)가 신뢰지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 국가일수록 신뢰지수가 높았다.

IMD지수는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기업효율성(business efficiency),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4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준은 다시 여러 하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기준은 다시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정책 하위기준의 탈세(tax evasion) 요소, 제도 하위기준의 투명성(transparency) 요소,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요소, 뇌물공여부패(bribing and corruption) 요소, 기업법령 하위기준의 금융기관의 법적 규제(legal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요소, 금융거래보호(confidentiality of financial transactions) 요소, 사회구조 하위기준의 정의(justice) 요소, 사적 안전과 재산(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요소, 정치불안정위험(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요소, 사회단결(social cohesion) 요소, 노동시장 하위기준의 노동관계(labor relations) 요소, 금융 하위기준의 일인당 신용카드 발급 수(number of credit cards issued) 요소와 금융기관 투명성(financial institutions' transparency) 요소, 경영관행 하위기준의 윤리적 관행(ethical practice) 요소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요소, 건강 환경 하위기준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요소 등이 개별국가의 신뢰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탈세가 적을수록, 정부정책이 투명할수록, 공공서비스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을수록, 경제에서 뇌물공여와 부패가 없다고 보일수록, 금융안정에 적절한 금융기관 규제일수록, 금융거래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될수록, 사회에 정의가 잘 실천된다고 보일수록, 개인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수록, 정치가 안정적일수록, 정부가 사회단결을 중시할수록, 노동관계가 생산적일수록, 일인당 신용카드 발급수가 많을수록, 금융기관이 투명할수록, 회사에서 윤리적 관행이 실천된다고 보일수록,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경영일수록, 삶의 질이 높게 보일수록 그 사회의 신뢰수준은 높다고 인식되었다.

경제적 자유 지수(Economic Freedom Index)도 신뢰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경제적 자유 연례보고서(Gwartney and Lawson, 2003)의 경제적 자유 종합점수(summary economic freedom rating)뿐만 아니라 제도적 구조와 재산권 안전(legal structure and security of property rights) 등의 기준과 하위 기준들도 신뢰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적 자유 지수도 관련 있었다(Miles et al., 2004). 즉 경제적 자유 지수가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03)의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도 신뢰수준과 통계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경쟁력지수는 기술지수(technology index), 공공제도지수(public institution index), 거시경제환경지수(macroeconomic environment index)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계약법률하위지수(contracts and law subindex)와 부패하위지수(corruption subindex)로 구성된 공공제도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신뢰수준이 높았으며, 또 거시경제환경지수 가운데 돈에 관한 정치인의 신뢰성 정도가 포함된 정부비효율성지수(government waste composite)가 그 국가의 신뢰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유로머니(Euromoney, 2003)의 국가위기(country risk) 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다. 국가위기 지수는 정치위기(political risk),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부채지표(debt indicators), 채무불이행(debt in default or rescheduled, World Bank, 2002), 신용등급(credit ratings), 은행대부(access to bank finance, World Bank, 2002), 단기금융(access to short-term finance), 자본시장(access to capital markets), 수출금융할인(discount on forfaiting) 등 9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진다. 채무불이행 변수를 제외하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정치위기가 낮다고 평가될수록, 경제성과가 높을수록, 부채가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은행대부·단기금융·자본시장·수출금융할인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대외신인도뿐만 아니라 국가내 사회신뢰 수준도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일인당국내총생산과 일인당국민소득(통계청, 2003; UNDP, 2003)이 클수록, 물가지수(IMF, 2003)가 낮을수록, 평균수명(UNDP, 2003)이 높을수록, 출생률(UNDP, 2003)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사회신뢰수준은 국내에서 높게 인지되었다.

그 외 GDP디플레이터(IMF, 2003), 인구대비 횡령(embezzlement)범죄 건수(UNODC, 2002), 인구대비 사기(fraud)범죄 건수(UNODC, 2002), 노동참가의 성별비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ion of female to male, World Bank 2003), 여성 1인당 기대출산율(fertility rate, UN, 2000; UNPD, 2002; UNSD, 2004), SLF(school life expectancy, 정규학교재학 기대연수, UNESCO, 2003; UNSD, 2004)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온다.

이 외에도 투입된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개별변수의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예측력 제고를 모두 투입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신뢰/불신 수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거짓말의 빈도가 그 예이다.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한결같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논문표절의 빈도, 각종 위조, 거짓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관용 등도 효과적인 변수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거짓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효과적인 설명변수일 것이다. 정직이 이익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별 손해가 아닌 사회와, 반대로 거짓이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는 신뢰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거짓에 대한 제재여부는 신뢰/불신 사회의 효과적인 설명변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변수화

가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고 하여 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 투입 변수의 신뢰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모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각국의 신뢰수준만을 측정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의 구체적 영향력을 논하지는 않는다.<sup>3)</sup> 개별 변수 특히 개별지수의 영향력으로 개 지수의 설명력 순위를 논해서는 아니 된다. 앞서 언급한 여러 지수들 가운데 다른 지수와 공통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주장하려면 종합지수 대신에 개별 변수들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변수별로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본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확대해석 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 점이다. 신뢰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여기에서는 신뢰수준 자체를 측정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해당 변수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 IV. 개별 국가의 사회신뢰 수준

이미 WVS의 질문 하나로 각국의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WVS의 조사치를 예측하는 것 대신에 간접 지표로 WVS의 조사치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WVS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대신에 모델에 따라 신뢰수준이 크게 바뀌는 국가들을 제외시킨다.

독립변수들의 분류, 즉 회귀방정식의 모델(독립변수)에 따라 신뢰수준(종속변수)에 대한 각 변수의 증감 영향(회귀계수)은 달라진다. 즉 구체적 모델에 따라 각국의 신뢰수준치와 순위는 달라진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신뢰수준의 수치 대신에 개괄적 신뢰수준만을 드러내고자 한다. 모델에 따라 그 추정치가 취약 또는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화를 추진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맹신적 계량화에 해당된다. 몇 주요 회귀방정식만으로도 각국의 신뢰수준 순위가 자주 변경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국가들을 신뢰수준에서 동일한 국가군으로

3) <표 3>의 유의한 변수들도 많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에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소멸된다. 예컨대, 1995~1997년 WVS에서 실제 조사된 58개 사회의 신뢰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오차범위가 적은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다. 결정치를 평균치로 대입한 가공의 변수를 포함하여 많은 변수들로 구성된 방정식이다. 여러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데, 주어진 사례와 변수들로 최대오차범위가 가장 작은 방정식을 추출할 수 있다. 최대오차범위가 가장 작은 방정식의 최대오차는 2.18이고, 그 방정식에서의 최대오차 사례는 슬로바키아이다. 슬로바키아의 1995~1997년 WVS 실제조사치는 23.01이었는데, 구축된 방정식으로 예측되는 신뢰수준은 25.19이었기 때문에 최대오차가 2.18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의 실제 조사치와 예측치의 오차는 2.18 미만이었다. 55개 독립변수 가운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하나도 없는 모델이지만, 이 방정식의 높은 R<sup>2</sup>값(0.9962)과 작은 오차 값(2.18)은 신뢰수준 추정방정식의 설명력과 적합성(fitness)이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류하였다. 즉 여기서는 결측치와 모델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신뢰수준 국가 순위 대신에 신뢰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결측 사례가 유사한 변수군(群)으로 구분하여 신뢰수준에 대한 각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계산하였다. 그 영향력은 모델에 따라 달리 계산됨을 물론이다. 가능한 한 많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몇 가지 모델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신뢰수준을 29.95 초과와 29.95 미만이라는 두 가지 값을 지닌 더미(dummy)변수로 만들었을 때에 각 모델(방정식)의 실제 설명력은 다양하였는데, 임시 종속변수(신뢰수준)가 존재하고 있는 58개 사례에 대한 실제 예측에서 오류 사례가 2건을 초과하지 않는 4개 모델만을 선택하였다.<sup>4)</sup>

임시 종속변수의 값 범위가 최소 5.02(브라질)에서 최대 63.93(노르웨이)인데, 일단 11.782 크기로 다섯 개 구간을 만들었다. 앞서 선택한 네 개의 방정식(모델)으로 각 사례(국가)의 신뢰수준을 추정하였다. 그 가운데 3개의 방정식의 신뢰수준 예측치 차이가 11.782 미만이면 그 사례(국가)들을 포함시켰고, 3개의 방정식으로 추정하는 신뢰수준 차이가 11.782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례(국가)들은 제외시켰다. 모델에 따라 신뢰수준 추정치의 변화폭이 큰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보츠와나, 쿠바, 북한 등 많은 국가들이 순위표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국가들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폐쇄적인 체제 특징 때문에 많은 변수가 결측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제외는 표본편중(selection bias)의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국가(사례)들이 아예 표본에서 제외되었다면 그것은 표본편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국가들이 방정식 추정에 다 포함되었으며, 다만 방정식간의 신뢰수준(종속변수) 추정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 신뢰수준 결정에서 제외시킨 것뿐이다.

모델에 따른 신뢰수준 추정치 차이가 11.782 미만일지라도 모델에 따라 개별 국가의 소속 구간 또는 국가간 순위가 바뀌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간에 속하도록 구간의 폭을 재조정했다. 즉 모델선택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국가군에 소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 <표 4>이다.

4) 이 방정식들은 55여 개의 독립변수를 지니고 있고 0.99 이상의  $R^2$ 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별로 없었다. 각 방정식의 회귀계수 및 표본오차를 나타내려면 방정식 당 1면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면상 생략한다.

&lt;표 4&gt; 신뢰수준에 따른 개별국가들의 분류

신뢰수준	국가목록
고(高)신뢰국	노르웨이, 덴마크, 버뮤다,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핀란드
고(高)-중(中)신뢰국	네덜란드, 레소토, 미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타이완
중(中)신뢰국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디아, 자메이카, 체코, 피지, 한국, 헝가리
중(中)-저(低)신뢰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멕시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탄, 세네갈,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저(低)신뢰국	루마니아, 르완다, 마우레타니아, 모잠비크, 브라질, 베네수엘라, 세이셸, 수리남, 슬로베니아, 앙골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토고, 페루, 필리핀

<표 4>는 전세계국가를 고신뢰국가, 고-중신뢰국가, 중신뢰국가, 중-저신뢰국가, 저신뢰국가의 다섯 가지 국가군으로 구분시키고 있다.

예상대로 북유럽국가들의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국가들의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정도 차이는 세계적 기관들의 기존 국가별 지수들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예컨대,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는 1인당실질GDP와의 상관관계수가 무려 +0.86에 이르고, CPI 값의 3/4이상이 1인당실질GDP 한 변수만으로 설명된다(Wihelm, 2002). 부패 또는 경쟁력에 관한 많은 지수들은 국가경제수준 지표와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WVS의 신뢰수준 조사치도 그림 1에서 보듯이 경쟁력과 종교문화라는 두 변수로 많이 설명됨으로써 경제 및 문화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보다 반대로 경제와 문화에 따른 신뢰/불신 개념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되는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제도는 불신을 전제로 하여 발달된 제도이다. 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군주제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제도를 발달시킨 것이다. 즉 민주주의 발달이 반드시 신뢰수준 증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가 결코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 사회불신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 V. 신뢰수준에 따른 국가분류표의 기여와 한계

사회 신뢰/불신의 지표에서는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측정보다 신뢰/불신에 대한 사람들의 직접 체감 정도가 더 적절하다. 그러한 점에서 직접 설문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직접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WVS 조사치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간 비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두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뢰/불신 수준 비교에서 WVS가 나타내는 신뢰/불신 수준의 고저(高低)는 지역전문가의 판단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국가간 비교에서 발견되는 WVS 값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WVS 자료를 기조로 하되 나름대로 일관성과 규칙성을 지닌 신뢰/불신 수준 값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한 변수들은 모두 제3자에 의해 구축된 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지표의 객관성도 확보하였다. 즉 객관적이고 일관된 사회 신뢰/불신 체감치이다.

WVS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뢰/불신의 국가순위표를 만드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순위표는 설문조사응답의 문화 자체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곤란하다. 규칙성을 지닌 신뢰/불신 수준의 순위도 모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불안정한 국가순위표 대신에 일관된 국가분류표만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본 연구의 국가별 신뢰수준 순위가 세계적 기관들의 여타 국가별 지수와 달리 개별 국가의 경제력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점은 신뢰/불신 지수가 경쟁력 지수와는 다른 차원의 측정지표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공공영역 또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닌 대인 신뢰 지표가 너무 경제력 변수로만 설명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본 연구의 국가별 신뢰수준 순위가 개별 국가의 종교문화에 의해서도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점도 위선적 문화권의 과잉 신뢰수준 평가에 제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신뢰수준에 따른 국가분류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모델 변화에 따른 순위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순위 대신에 분류만을 하였지만, 계량적 지표의 장점인 구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규모가 작거나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변수가 많지 않아 몇 개의 변수만으로 그 국가의 사회신뢰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분류표에서 제외된 국가(사례)들 대부분도 이용가능한 변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모델에 따라 신뢰수준(중속변수) 추정치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것이다. 결측치를 줄이는 데이터 보완은 안정적인 국가순위를 가능하게 하여 전세계 국가의 구체적인 순위와 지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교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측정시점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의 순위 또는 분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들의 특징을 분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의 국가순위라고 주장하려면 시차가 분명히 인정되는 변수를 제외하곤 동일한 시점의 변수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신뢰수준에 대한 결정요인과 효과들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추출된 방정식은 높은 종속변수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고 검증가설에 따라 일부 변수가 투입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수히 많다. 본 연구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며, 이론 및 가설 검증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수준이 민주화, 경제성장, 갈등해결 등과 갖는 관계는 차후의 연구주제이다. 부, 생산성, 배분 등에 관한 추정치 자체가 인과관계 연구 없이도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뢰수준에 대한 추정치 자체도 큰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계량화의 난점으로 잘 시도되지 않았던 개별국가의 사회신뢰 수준을 아마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마다 다른 신뢰수준의 국가순위를 일치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 일부 계량화 작업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반영하여 객관화라는 계량적 접근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지수 작업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아울러 결측치 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 활발하지 않는 방법론적 논쟁을 촉진시켜 계량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

- 김재한. 2004. 「한국사회의 불신구조: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비교」 『한국부패학회보』 9권 2호. pp.35-57.
- 통계청. 2003.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 Buchan, Nancy R., Rachel T. A. Croson, and Robyn M. Dawes. 2002. "Swift Neighbors and Persistent Stranger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rust and Reciprocity in Social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 pp.168-208.
- Cho, Kisuk, and Byung-Il Choi. 2000. "A Cross-Society Study of Trust and Reciprocity: Korea, Japan and the U.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 pp.31-43.
- Euromoney. 2003. "Country Risk," *Euromoney Magazine*(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Plc) March; <http://www.euromoney.com/default>.

- asp?Page=14&S=S&PUB=20&ISS=1181&SID=86676&Country=&SM=ALL&SearchStr=country%20risk%20ranking.
- Fishman, Raymond, and Tarun Khanna. 1999. "Is Trust a Historical Residue? Information Flows and Trust Level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38. pp.79-92.
- Freedom House. 2003. *Freedom in the World 2003, The Annual Survey of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http://www.freedomhouse.org/research/index.htm>.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iego. 1988. "Can We Trust in Trust?,"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lackwell. pp.213-237.
- Glanville, Jennifer Lynn. 2002. "Ties and Trust: Can We Rely on Voluntary Associations to Produce Social Capita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2. 62, 11. May 3956-A.
- Gwartney, James and Robert Lawson. 2003.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3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 Hagen, James M., and Soonkyoo Choe. 1998. "Trust in Japanese Interfirm Relations: Institutional Sanctions Matt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pp.589-600.
- IMD. 2003.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http://www01.imd.ch/wcy/>.
- IMF.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rom; [http://kosis.nso.go.kr/cgi-bin/SWS\\_1020.cgi?KorEng=1&A\\_UNFOLD=1&TableID=MT\\_PTITLE&TitleID=a&FPub=3](http://kosis.nso.go.kr/cgi-bin/SWS_1020.cgi?KorEng=1&A_UNFOLD=1&TableID=MT_PTITLE&TitleID=a&FPub=3) and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3/02/data/index.htm>.
- Inglehart, Ronald. 1998. *World Values Surve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_\_\_\_\_.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ark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88-120.
- Inglehart, Ronald, and Wayn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pp.19-51.
- Inglehart, Ronald, Miguel Basanez, and Alejandro Moreno. 1998.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 Cultural Sourcebook*.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im, Yong-Hak, and Jaesok Son. 1998. "Trust, Cooperation and Social Risk," *Korea Journal* 38. pp.154-189.
- La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a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7. pp.333-338.
- Miles, Marc A., Edwin J. Feulner, Jr., Mary Anastasia O'Grady, and Ana I. Eiras. 2004. *2004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Wall Street Journal. From; <http://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ndex/downloads.html>.
- Miller, Alan S. and Tomoko Mitamura. 2003. "Are Surveys on Trust Trustworth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 pp.62-70.
- Nowak, Martin A., and Karl Sigmund. 2000. "Shrewd Investments," *Science* 288. pp.819-820.
- Onyx, Jenny and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Science* 36. pp.23-42.
- Ouchi, William. 1981. *Theory Z*. Reading, Mass.: Addison-Wesley.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mizu, Kumiku and Qiaoming Amy Liu. 2000. "Volunteerism in Japan,"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y Association.
- Stolle, Dietlind.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in Karen S. Cook, ed. *Trust in Society*. New York: Russel Sage. pp.202-244.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3*. From; [http://www.transparency.org/pressreleases\\_archive/2003/2003.10.07.cpi.en.html](http://www.transparency.org/pressreleases_archive/2003/2003.10.07.cpi.en.html).
- UN. 2000. *Demographic Yearbook 2000*.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F.02.XIII.1.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From; <http://hdr.undp.org/reports/global/2003/>
- UNESCO. 2003. *School Life Expectancy, Percentage of Repeaters and Survival Rates to Grade 4 and 5 by Country and Gender*. Institute for Statistics. August. From; <http://www.uis.unesco.org>.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2. *The Seventh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 Criminal Justice Systems(1998-2000)*. From; [http://www.undcp.org/undc/en/crime\\_cicp\\_survey\\_seventh.html#responses](http://www.undcp.org/undc/en/crime_cicp_survey_seventh.html#responses).
- UNPD(United Nations Secretariat Population Division). 200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3.XIII.6.
-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04. *Social Indicators*. From;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default.htm>.
- Yamagishi, Toshio. 1988. "Exit from the Group as an Individualistic Solution to the Public Good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pp.530-542.
- Wihelm, Paul G. 2002. "International Validation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mplications for Business Ethic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35. pp.177-189.
- World Bank. 200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2*. From; <http://www.worldbank.org/data/wdi2002/index.htm>.
- \_\_\_\_\_. 200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From; <http://www.worldbank.org/data/wdi2003/index.htm>.
- World Economic Forum. 2003.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From: <http://www.weforum.org/site/homepublic.nsf/Content/Global+Competitiveness+Programme%5CGlobal+Competitiveness+Report%5CGlobal+Competitiveness+Report+2003-2004>.

## A Research Note on Measuring Nations' Social Trust Levels

**Kim, Chae-Han**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Hallym University*

Various concepts have been used in area studies. Recent studies emphasize such cultural concepts as social trust. Since most cultural approaches focus on a specific area instead of comparing multiple areas, they rarely use quantitative data. Therefore some of literatures comparing given nations' social trust levels sometimes show that descriptions contradict each other.

For example, the order of social trust levels among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varies by the litera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nations' social trust levels more objectively by using some quantitative data. A stable classification table is suggested here instead of a concrete ranking table which is dependent on its specification model.

WVS(World Values Survey) seems to be most systematic of the existing studies regarding on social trust. Interview data are necessary, although not sufficient, in measuring how people feel about social trust. Some other variables related to people's feeling toward social trus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s process of modelling may calculate a new level of each nation's social trust. With some inconsistent orders of nations' social trust levels, any ranking table is not suggested in this study. Some classification tables with broad categorization, however, survive those inconsistent rankings. Including many variables, this study shows how high or low each nation's level of social trust is. It may contribute to clarifying some disagreements on the social trust level of each nation. In addition, some methods on dealing with missing values are shown in this study.

***Keywords: social trust, nations' ranking, WVS(World Values Survey)***